

물음의 책임*

: 박동환 철학의 지렛목(hypomochilum)**

김 동 규***

주제분류 현대철학, 존재론, 한국철학

주요어 박동환, 물음, 논리, x , $\neg x$, X , 인간중심주의, 주변자, 사랑, 윤리

요약문

본 논문의 목적은 이미 국내 철학자들로부터 찬사를 받았던 박동환 철학의 핵심을 ‘물음’이라는 키워드로 재구성하고 비판적으로 성찰해 보는 데 있다. 여기서 물음이란 철학, 즉 알고(sophia) 싶은 마음(philía)에 다름 아니다. 박동환은 술한 물음을 던진, 물음에 사로잡힌 철학자다. 그는 철학적 물음과 그렇지 않은 물음을 구분한다. 그리고 논리를 물음의 형식으로 규정한다. 그에 따르면, 논리에는 정답을 가정하는 ‘해답의 논리’와 그렇지 않은 ‘물음의 논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 2019S1A5C2A04083293).

** 이 용어는 본래 ‘지렛대의 받침목’을 가리키는 말이다. 철학에서는 칸트가 말년 (1798)의 저서, 『학부들의 논쟁』에서 처음 유의미하게 사용했다. 그리고 칸트 저작에 대한 해석의 실마리로서 데리다가 「모클로스(Mochlos)」라는 논문 제목으로 사용한 적도 있다. 필자는 일차적으로 육중한 무게의 박동환 철학을 들어 올릴 수 있는 지렛대라는 의미로 사용한다. 그리고 지렛대를 아래로 눌러 물체를 위로 들어 올리는 방향 전환점인 받침점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한편에서는 박동환 철학의 강점이자 동시에 약점이 되는 지점을 가리키는 것으로, 다른 편에서는 날 선 비판을 통한 경의(敬意) 표명의 자리라는 양가적(ambivalent) 의미로서 이 용어를 사용했다. 본문에서 확신하게 될 테지만, 박동환 철학의 지렛목은 바로 ‘물음’이다. 임마누엘 칸트, 『학부들의 논쟁』, 오진석 옮김, 도서출판b, 2012. 162쪽. J. Derrida, “Mochlos, or The Conflict of the Faculties”, in: *Eyes of the University: Right to Philosophy*2, tras. by J. Plug & Other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83-112쪽.

*** 연세대학교 교양교육연구소 전임연구원

리'로 나뉜다. 흥미롭게도 그는 물음을 원시적인 생명현상(예컨대 냄새 맡기나 짚러보기)과 관련짓는다. 그는 서양과 동양의 문명의 논리가 해답의 논리라면, 한국인과 유대인 같은 주변자는 원시적인 물음의 논리에 가까운 사유 방식을 구사한다고 본다. 최근 그는 그간의 논의를 종합하는 독창적인 존재론, 소위 'x의 존재론'을 발표했다. 그 존재론에 따르면, 존재는 세 가지 국면을 보여준다. (1) 영원의 기억을 담고 있는 몸을 지닌 개체 x, (2) x라는 기반 위에서 무한의 상상과 파격을 감행하는 $\neg x$, (3) 그 둘마저 끝내 격파하는 X(). 본 논문이 미처 다루지 못한 x의 존재론에 대한 엄정하고 세세한 평가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를 통해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이른바 박동환 철학의 아킬레스건은 물음들 저변에 놓인 '필리아'에 있다. 물음의 윤리성에 있다. 물론 박동환은 '개체성의 자연보호와 독선 금지'를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사실의 세계에서는, 그것도 미지(未知)를 핵심으로 삼는 x의 존재론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이래야만 한다'는 당위의 언사는 불가능하다. 당위는 존재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 물음의 부산물인 소피아에 당위는 없다. 소피아에는 오직 '이다'만 있을 뿐이다. '이어야 함'은 오직 (존재 물음을 추동하는) 필리아에서만 나올 수 있다. 불가해한 필리아만이 이유나 조건 없는 당위를 말할 수 있다.

1. 물음과 철학

주지하다시피 철학(philosophy)은 앎(sophia)에 대한 사랑(philía), 곧 알고 싶은 욕망이다. 어쩌면 이 필리아의 비밀을 푸는 것이 철학을 이해하는 관건인지도 모른다. 고대 플라톤의 『향연』에서 현대 푸코의 『지식의 의지에 관한 강의』¹⁾에 이르기까지 철학자들은 지속적으로 철학을 이해하는 핵심어로 사랑을 탐구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알고자 하는 것일까? 이 욕망은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 『형이상학』에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단지 인간의 본성이라고 가볍게 처리했다. “모든 사람은 본성상 알고 싶어한다.”²⁾ 자연스러운 ‘본성(phusei)’을 말하자마자 물음은 중단되기 쉽다. 본디 그렇다는데, 더 할 말이 있겠는가. 하지만 물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물음은 언제나 해답으로 제시된 ‘본성’을 넘어간다. 왜 알고 싶어야만 할까? 끈질기게 물음은 물음 자신을 이어간다.

‘알고 싶은 본성을 가정하더라도, 인간이란 동물은 어떻게 이런 본성을 가지게 되었을까?’라는 종류의 물음도 제기될 수 있다. 심지어 질문은 이렇게 묻는 자신마저 물음에 붙인다. ‘왜 묻는 걸까?’라며 재차 묻기 때문이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물음의 파노라마를 보고 있노라면 물음은 물음을 통해서도 결코 해소될 수 없을 것만 같다. 물음이 해소되었다고 여기는 경우는, 물려서(satiable) 그만두든지 아니면 끝까지 물고 있다가 그게 익숙해져서 물고 있는 것조차 잊든지, 둘 중 하나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철학자는 물음에 생의 정곡을 물린(bitten) 사람이라 할 만하다.

박동환은 철학자다.³⁾ 물음에 물린 진짜 철학자다. 한평생 그는 물음을

1) 플라톤(2020)의 ‘에로스’와 푸코(2017)의 ‘지식의 의지’는 필라소피 속의 필리아를 지칭하는 다른 말들이다.

2)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1』, 조대호 옮김, 나남, 2012. 25쪽. I 권(A) 980a.

지켜워해 본 적이 없어 보인다. 이것은 그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된 평가다. 물음이야말로 ‘박동환’이라는 기표가 동료들에게 즉각적으로 환기시키는 기의다. 그와 철학적 대립각을 세우는 이들조차 박동환의 물음에의 열정과 물음의 파격성 및 개시성(開示性)만큼은 인정한다. 이것은 그가 쓴 책을 펴보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그의 첫 저서, 『서양의 논리 동양의 마음』은 책 전체가 온통 물음투성이다. 물음이 없는 문단이 거의 없을 정도다. 빗발치는 화살처럼, 그는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독자들에게 수많은 물음표(?)를 쏘아 올린다. 혹은 낚시 바늘(釣)처럼 드리운다.

도대체 그는 그 술한 물음들을 통해 무엇을 낚으려 했던 것일까? 한두 마디 말로 답하기는 어렵다. 다만 그의 책 전반을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물음을 통해 낚으려던 것보다는 차라리 그 자신이 물음에 낚여 있는 아이러니다.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 물음의 투망을 던지면 던질수록, 그는 더 크고 복잡한 물음들에 낚인다. 물음으로 낚으려는데 그럴수록 자꾸만 물음에 낚이는 형국이다.

-
- 3) 저명한 외국 철학자에 관한 논문이 아닌 관계로 박동환 선생(이후 존칭 생략)에 대한 간략한 소개가 필요할 것 같다. 그는 전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연세대학교 철학과와 같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1971년 미국 남일리노이 주립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1981~82년 네덜란드 라이덴 국립대학과 암스테르담 자유대학에서 학제간(interdisciplinary) 프로젝트 연구교수로, 1993~94년 베이징대학에서 방문학자로 동서비교철학 과제를 수행했고, 2001년 연세대학교 철학과를 정년 퇴임하였다. 저서로는 『사회철학의 기초』(1976) 『서양의 논리 동양의 마음』(1987) 『동양의 논리는 어디에 있는가』(1993) 『안티호모에렉투스』(2001) 등이 있으며, 그간의 저작들과 새 저서 『x의 존재론』(2017), 『진리의 패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2019)를 묶어 「박동환 철학선집」(전5권, 출판사 사월의책)을 출간하였다. 한국철학계에서 신망이 두터운 김상봉(2001), 김상환(2012) 등이 주목했던 한국의 철학자다. 스스로 철학 하는(philosophieren) 대신에 외국 철학을 추종하는 데 안주했던 얼마 전까지의 국내 철학계에서 그는 희귀한 존재다. 필자도 이미 『멜랑콜리아-서양문화의 근원적 파토스』(문학동네, 2014)를 비롯한 몇몇 지면에서 그의 철학을 논한 적이 있다.

2. 물음의 의미

물음은 박동환 철학의 형식이자 내용이다. 박동환에 비견할 만큼 물음과 철학을 동근원적인 것이라 여겼던 철학자로 하이데거를 꼽을 수 있다. 하이데거는 ‘철학의 근본물음(Grundfrage)’을 논하면서 철학과 근본물음이 상호 규정적이라고 말한다. 그에 따르면, “근본물음은 철학의 본질로부터 규정되며, (철학의: 인용자 첩인) 본질은 근본물음으로부터 규정된다. 실제로 그렇다. 근본물음을 묻는 것 자체가 철학의 본질을 드러낸다.”⁴⁾ 단순히 수많은 물음을 던졌다는 것만으로 물음이 그의 철학 자체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제 박동환 철학에 등장하는 물음의 의미와 위상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박동환은 물음을 두 가지로 구분한다. 하나는 ‘철학적 물음’이고 다른 하나는 ‘비철학적 물음’이다.

아직도 철학적 물음이 비철학적 물음과 함께 섞여 있다. 철학적 물음이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다른 모든 물음들이 떨어져 나간 다음에 남는 가장 **순수한** 것이다. 더 이상의 이런저런 정보가 흔들 수 없는 영원의 사태에 관한 것이다(선집2, 39-40; 원문 강조).⁵⁾

여기에서 물음은 ‘철학과 비철학, 순수와 비순수 혹은 영원과 임시’로 양분된다. 철학적 물음이란 임시의 사태에 대한 방편적 물음들이 찾아들고 난 뒤에, 해소되지 않은 채 남겨진 영원한 사태에 대한 물음이다. 이런 물음만이 순수하다. 이것은 얼핏 순수를 정련하고자 했던 칸트적 구분법 같기도 하고, 초시간적인 영원과 시간적인 것을 구분하던 전통 철

4) Martin Heidegger(2001) 5쪽.

5) 박동환 저서 인용은 ‘사월의책’ 출판사가 펴낸 선집 판본을 따르고 있으며, 본문에 (선집 번호, 쪽수) 순서로 표기할 것이다. 자세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참조.

학자들의 평범한 기준처럼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가 주재하는 철학적 물음의 범정에 동서양의 전통 철학이 모조리 회부되며, 이전 문답(問答)들은 비철학적이고 불순한 것들이 폭로된다. 그런 사정을 고려한다면, 구분 갖대에 대한 평가는 나중으로 미뤄도 무방할 것이다.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박동환의 어법, 즉 기존의 번잡한 사유와 언어를 산산이 파쇄시키는 ‘미니멀리스트’(선집4, 203-220 참조) 언어 구사법⁶⁾은 아마도 이런 물음의 순수성에서 배태된 것으로 보인다.

박동환 철학의 완결판(완결 불가능성을 입증했다는 뜻의 완결)인 ‘x의 존재론’에 따르면, 물음, 정확히는 철학적이고 순수한 물음이란 ‘엑스(x, $\neg x$, X)를 향한 물음’이다. 철학의 순수한 물음 대상은 잡다한 물음들이 함몰되는 블랙홀, 엑스다. 이런 의미에서 철학은 ‘순수’하게 ‘엑스’만을 묻는 활동이다. 그의 젊었던 목소리로 말하자면, “철학은 모든 우연으로부터 벗어나려는 움직임”이며 “철학자에게 논쟁은 필연을 찾으려는 데서 일어난다(선집1, 38).” 우연, 자의, 임시방편 등에서 벗어나 어찌할 수 없이 귀착될 수밖에 없는 필연 및 운명을 묻는 활동이 철학이다. 철학에 대한 이런 생각은 그가 논리 연구에 전념했을 때 ‘묻는 행위’로서 논리를 규정하면서 본격화된다.

논리란 무엇인가? 논리적 추론이란 다만 물음의 행위일 뿐이다. 이 물음 형식을 찾는 데에 논리학의 뜻이 있다. ... 물음이 지향하는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의 “같음”을 물음이다. 그 “같음”을 추적하는 물음으로서 이런저런 상향추론과 하향추론의 형식이 이루어진다 (선집2, 45).

- 6) 미니멀리스트란 번잡하지 않게 사유와 언어를 최소로 절제해 사용하는 박동환 철학의 스타일을 가리키는 말이자, 그가 바라본 존재의 국면들, 즉 x , $\neg x$, $X()$ 라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말이다. 본문에서는 전자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후자의 경우로는 예컨대 “가예로 밀려나 숨을 죽이고 있는 무언의 미니멀리스트 x 또는 $\neg x$ 또는 $X()$ 는 인간을 포함한 유한의 존재들이 판단하고 행동하기만을 기다리는 이른바 말없이 순종하는 물자체가 아니다”(선집4, 306)라는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논리란, 통상 알려져 있듯이, 그저 사고나 추리 따위를 이끌어 가는 형식이나 법칙 또는 사물 속에 있는 이치를 뜻하는 게 아니다. 그런 것들의 배후에는 특정한 물음이 놓여있다. 논리란 물음의 형식이며, 물음은 논리의 내용, 즉 논리의 향방을 정하는 방향타이자 논리를 전개하는 원동력인 셈이다. 예컨대 대전제 속에 함축된 불투명한 명제를 도출하는 연역논리(하향추론)나 주어진 인접 사실들을 그러모을 수 있는 보편 명제를 추적하는 귀납논리(상향추론)가 가능하려면, 일단 결론으로서 알고 싶은 그 무엇을 지향하는 물음이 선행해야 한다.

그런데 논리를 추동하는 이런 물음은 대개 ‘같음’의 형식을 내장하고 있다. 이 물음은 ‘A=B’라는 동일성(=)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A=A’, ‘B=B’라는 ‘자기동일성(self-identity)’을 전제한다. 다시 말해서 물음이 구하는 바와 찾아진 답이 일치할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전제가 삽입되어 있다. 그래서 물음의 ‘해답’ 내지 ‘정답’이 존재한다는 ‘동일성의 존재론’이 기저에 놓여있다. 박동환은 그런 논리, 존재론을 다시 물음에 붙인다. 그리고 기존 동서양 철학사에 팽배했던 물음의 형식을 “해답의 논리”라고 규정한다(선집3: 9, 63, 97, 99, 193, 221). 그것은 일거에 물음을 해소해줄 해답을 가정했다는 것이다.

해답의 논리와 대비되는 ‘물음의 논리’는 문명 이전의 시원적 생명현상과 관련된다. 박동환은 물음이라는 것을 기초적인 생명 활동 수준에서 이해한다 “생명의 가장 오래된 탐구 형식은 물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물음이 구체화된 단순한 표현은 찢어보거나 냄새를 맡아보는 것이었다. ... 하나의 생명은 태어나 찢어보거나 냄새 맡아 보기와 같은 유치한 단계를 거치며 쉽 없는 질문을 던져 그의 일생이 통과하는 그때그때의 해답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얻은 어떤 해답이든 그것은 쉽 없이 이어가는 긴 일생의 질문 과정에 잠깐잠깐 일회적으로 주어지는 휴식이다(선집 4, 591-92).” 물음의 논리는 답을 열어놓고 제대로 묻기에만 전념할 따름이다. 해답과 그것을 도출해낼 번듯한 도구로서의 기지(既知)를 크게 신

되지 않는다. 자연과 끝없이 이어지는 문답 속에서 기지는 결국 한계 상황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인간은 몸뚱아리 하나로만 환경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생명체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 여타의 생명체처럼 인간도 예측불허의 상황 속에 함몰될 수밖에 없다. 중국에는 자연선택을 당하는 일개 생명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물음의 논리는 생명체 일반의 운명에 부합하는 탐구 형식일 것이다. 게다가 물음의 논리를 통해서야 비로소 자연은 자기 본연의 모습을 드러낸다. “물음의 논리가 해답의 논리보다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가장 으뜸되는 일은 그것이 인간 경험의 암호 성격 또는 []에 빠져 있음을 가르쳐 주는 것”(선집3, 9)이다. 우리가 경험하는 자연은 궁극적으로 풀리지 않는 암호다. 물론 자연이 우리의 물음에 답하기는 한다. 그러나 언제든 그 대답은 돌변할 수 있다. 이쪽 물음에 대한 저쪽 반응은 그저 입시의 제한된 응답일 뿐이다.

하나의 응답을 응답으로 알아듣기까지 수많은 ‘아니다’라는 판단들이 선행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 겨우 ‘이다’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다. 물음에 대한 응답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물음이란 것 자체가 부정적인(‘나’가 아닌, ‘나의 인식’에 들어오지 않은) 타자와의 만남의 소산이기 때문이다. 그 만남을 통해서 익숙했던 것들조차 낯설어질 때, 물음이 의식 위로 떠오른다. “빠져든 습관의 늪에서 자기의 몸을 일으키는 행위. 그것이 물음이다. 조류에서 자신을 세워서 ‘아니다’로 거슬러오는 타자의 파도에 부딪히려고 물음을 던진다(선집1, 76).”

사람들은 물음이란 그물을 던지고 거기서 건져 올린 것을 정답이라고 간주한다. 자신이 만든 물음이 허무맹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춤춤한 합리성) 그 물음에 반복적으로 동일하게 응답하는 인식 대상의 항상성을 믿기에, 그 응답이 정답임을 크게 의심하지 않는다. 이런 종류의 물음은 애초부터 대상의 동일성, 제일성(齊一性), 규정 가능성을 전제한 것이다. 물음 조작(造作)의 무오류성을 전제한다. 이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이다’로 규정될 수 있고, 그래서 알려질 수 있으며 언어를 통해 소통될 수 있다는 (고르기아스가 의심했던) 전제 위에 세워진 물음이다. 이것이 바로 해답의 논리가 장착된 물음이다.

자연이라는 대상조차도 조작·규정하려는 행위로서의 나의 물음에 대하여 어떤 응답을 던져 올지 물음을 던지는 내가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결정론의 세계관은 의식의 존재에 대한 일방적 규정행위이며 존재영역으로부터 예상할 수 없는 반론과 보복을 받을 수 있는 여지를 간과하는 것이다. ... 그 자체의 모습은 모든 가능한 응답을 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암호상자 안에 잠겨 있는 알 수 없는 어떤 것일 뿐이다(선집2, 64).

자연은 인간 인식을 통해 조작되고 규정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물론 자연은 인간이 던지는 물음에 답을 주지만, 이 답이 항구적인 정답일 수는 없다. 임시 조건부의 응답에 불과하다. 박동환은 그런 자연을 ‘암호상자’로 빗댄다. 궁극적으로는 어떤 답이 나올지 알 수 없는 불가해한 수수께끼)다. 이것은 후에 ‘엑스’로 표기된다. 우리가 마주한 것은 한갓 인식 대상이 아니라 x 혹은 X 다. 인식 주체로 간주되는 인간 역시 영원의 기억으로서 잠시 세상에 몸을 드러낸 x 이자 기성의 자기를 부정하는 ‘네버 엑스($\neg x$)’로서 부단히 파격을 줄 수 있는 것이지만, 중국에는 초월적이고 절대적인 X 에 의해 격파될 운명이다. 해답의 논리로는 결코 이런

7) 장-조제프 구(2016)의 흥미로운 해석에 따르면, 수수께끼를 내는 괴물, 스팅크스를 물리친 오이디푸스는 철학자의 원형을 보여준다. 이 신화는 서양문명이 만들어낸 자연정복의 서사물이다. 그런데 진정 인간은 자연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을까? 다희의 여지가 많은 이 물음에 대한 답은 차치하기로 하자. 대신 이 신화에서 스팅크스가 먼저 수수께끼를 냈다는 점에 주목하자. 스팅크스가 먼저 묻고 오이디푸스는 그 질문에 대답하려고 내면에서 계속 묻다가 답을 말한다. 이 점에서 인간이 질문을 던지기 훨씬 이전에 자연은 인간에게 물음을 던졌다. 수수께끼처럼 자연의 은폐하는 모습을 ‘베일에 가린 이시스’ 여신에서 찾은 아도의 글(Hadot, 2006), 특히 괴물 스팅크스로 자연을 빗댄 것에 대한 해석 부분(284쪽 이하)은 참조할만하다.

것을 말할 수 없다. 오직 물음의 논리를 통해서만 엑스의 존재가 개시된다. 물음으로 접철된 탐구행위는 “반응하는 자연과 대처하는 행위자, 대응하는 자연과 적응하는 행위자가 치열하게 맞서는 관계 행태”이다(선집3, 57).”⁸⁾ 여기에서 박동환은 자연과 인간의 상호관계로서 질문을 파악한다. 탐구란 자연과 쌍방향으로 주고받는 질의응답이다. 인간이 자연에게 일방적으로 질문하는 게 아니다. 인간이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것은 차라리 질문을 이미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순수한 철학적 물음은 ‘엑스를 향한 물음’이자 동시에 ‘엑스의 물음’이다. 물음이란 영원의 사태(X)에 대한 한 인간(x)의 쉽 없는 접근이자, 그러도록 이미 x에게 건넨 X의 수수께끼다. 수수께끼의 유인력(誘引力)이다. 물음을 이끄는 쪽이 X일 수 있다는 생각은 박동환의 글에서 분명히 강조되지 않고 있는데, 이점은 이 글의 마지막에서 다룰 것이다.

3. 근본 물음

박동환은 질문하는 철학자, 질문에 낚인 철학자다. 마치 하이데거의 ‘존재(das Sein)’처럼 일평생 그를 사로잡은 ‘근본 물음’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그가 지극히 다양한 사유의 궤적⁹⁾을 보여주기에 단 하나의

8) 박동환은 포퍼가 이런 물음의 논리를 잘 형식화했다고 본다. “포퍼도 아메바로부터 아인슈타인에 이르는 유기체가 수행하는 생명행태의 논리형식을 제시한다. 그것은 시행착오의 진행형식이다. 그것은 되먹임과 흔들림의 경우처럼, 추측(conjectures)과 반박(refutations)이 연계되는 ‘ $P_1 \rightarrow TS \rightarrow EE \rightarrow P_2$ ’라는 절차로 나타난다. 여기서, 주어진 문제(P_1)에 대한 어떤 해답도 언제나 오류에 부딪쳐 고쳐질(Error Elimination)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하나의 문제(P_2)를 낳는 임시의 해답(Tentative Solution)에 지나지 않는다.(선집3, 96-97).” 이외에도 필자와의 대화에서 그는 자신의 물음이 토머스 쿤과 로빈 콜링우드, 그리고 갑골문에서 시작하는 고대 한어 어법과 노버트 위너의 사이버네틱스 등과 관련되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9) 서양 쪽으로는 영미철학, 논리학, 과학철학, 실존주의와 마르크스주의를 포함한 유럽 철학을 횡단했고, 동양 쪽으로는 선진유가철학, 도가철학, 불교철학 등을 넘나

물음으로 환원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런 환원이 불가능하지 않으며, 근본 물음에 대한 물음은 그의 철학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지평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유용하다.

필자가 보기에, 박동환의 근본 물음은 ‘이것이 진정 중심일까?’라는 중심에 대한 회의(懷疑)에서 시작된다. 여기서 중심이란 동일화를 강요하고 위계질서의 상위(上位)를 정당화하는 보편성을 말한다. 이런 회의와 연계된 물음은 ‘인간중심주의로부터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라는 물음¹⁰⁾일 것이다. 1980년대 ‘타자’에 대한 관심으로부터 최근 ‘진리의 패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논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박동환은 이 물음을 던져왔다. 최근 갈무리된 ‘x의 존재론’은 이 끈질긴 물음의 혹독한 시련을 통과한 대답이다. 이 물음은 변방의 주변인으로서 동서양의 중심부 철학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들 철학과의 불일치를 경험하면서 생겨난 것이다. 그는 화려하고 거대한 문명으로부터 시선을 돌려서, 무력하고 이름 없는 이방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했다.

인간중심주의¹¹⁾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어렵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이다.

들었으며, 과학에서 사회학, 신학까지 학제연구를 겁내지 않았고 특정 시대에 국한됨이 없이 자유분방한 사유의 길을 걸었다. 지금까지 나온 선집 다섯 권이 그것을 증명한다. 놀라운 점은 이런 사유의 폭을 가지고 있음에도 피상적이라는 느낌을 전혀 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도 그가 ‘자기 물음의 깊이’를 휴대하고서 사유의 길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그는 경탄할만한 사유의 폭과 깊이를 일궈낼 수 있었다.

- 10) 온갖 종류의 중심들, 예컨대 동물과 차별화하는 인간 중중심주의, 서양중심주의나 중국중심(중화)주의 같은 문명중심주의, 백인중심주의 같은 인종중심주의, 유대중심(선민)주의 같은 종족중심주의, 남성중심주의 같은 성중심주의, 엘리트중심주의 같은 계급중심주의, 이성을 인간만의 특성으로 여기고 미화하는 이성중심주의 등을 열거할 수 있다. 편의상 여기서는 이런 모든 중심주의를 포괄하는 말로 ‘인간중심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하기로 한다.
- 11) 통상 인간중심주의(anthropocentrism)라는 용어는 세 가지 의미 층을 가진다. (1) 존재적 차원: 자연은 인간과 구분될 수 있고, 인간 편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2) 인식적 차원: 인간의 인식망에 잡히지 않는 자연은 고려할 가치가 없다. (3) 윤리적 차원: 자연은 윤리적으로 인간과의 관련 속에서만 부차적인 고려 대

박동환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인간의 자식’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자식인 ‘나’는 전승된 문화와 가치관, 세계관, 이데올로기 등이 이식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전승받은 것들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는 없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자연의 후예’이기도 하다. 스케일을 최대한 확장시키면, 138억년의 우주의 역사가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 고스란히 각인되어 있다. 세포 내에, 유전자 안에 우주의 역사가 기억되어있는 셈이다. 천문학적인 시간 속에서 환경변화에 따라 자연이 선택한 모습을 온전히 간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본능의 형태이든 자율신경계의 형태이든, 현재의 ‘나’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나의 배후에서 나를 움직이는 것이 바로 영원의 기억인 x 다. x 는 기성의 협소한 인간관을 모조리 무효로 만든다. 중심이 될만한 인간적 토대를 한순간에 허물어트린다.

실존적 차원에서 x 의 일차적 의미는 무지(無知)이다. 내가 누구인지, 자연이 어떤 방식으로 나를 형성했는지 알 수 없다. 안다 해도 그 앞의 총량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미지의 x 라고 명명한다. x 는 알 수 없는 영원과 무한의 마디(節)이다. 이런 x 의 바탕 위에서 무한히 뻗어가는 상상이 더해질 때, $\neg x$ 가 등장한다. $\neg x$ 란 영원의 ‘기억’인 x 를 터전으로 삼아 무한의 ‘상상’에 의해 주도되는 자기 반전의 시나리오이다. 허나 이 모든 것도 여전히 몸을 가진 유한한 개체 수준에 한정된 이야기이다. x 든 $\neg x$ 든 중국적으로 $X()$ 의 격파를 피할 수 없다.

상이 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김동규(2018/2019)의 글과 다음 논문을 참조하십시오. Dario Martinelli, “Anthropocentrism as a social phenomenon: semiotic and ethical implications, in: *Social Semiotics*, vol. 18, no. 1, March, 2008. 79-99쪽. 서양 지성사에서 인간중심주의는 특히 다윈을 통해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는 로러의 책이 참조할만 하다. Leonard Lawlor, *This Is Not Sufficient: An Essay on Animality and Human Nature in Derrid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25쪽. 그에 따르면, 동물론은 오랜 역사를 가진 형이상학적 분리주의(metaphysical separationism)와 다윈의 진화론에 입각한 생물학적 연속주의(biological continuum)로 양분될 수 있다. 후자의 흐름이 근본적으로 인간중심주의를 뒤흔들고 있다.

생명체의 차원에서 죽음이란 개체 x 가 격파되어 $X()$ 로 함몰되는 사건을 뜻한다. 임시적으로 할당된 개체의 한계가 무너지는 사건이다. 사람들은 $X()$ 의 격파를 대처하는 최상·최선의 태도가 바로 들림, 구원 혹은 열반, 해탈이라고 말해왔다. 박동환도 이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다르게 해석할 뿐이다. 그가 보기에, 이런 것들이 격파를 모면하게 해 주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것들은 격파의 증언이다. 격파의 경험을 온전히 살려내는 새 삶, 소위 ‘거듭남’이다. “닥쳐오는 격파의 상황 체험 가운데서 한 사람은 그의 인식과 행위를 지지해오던 그의 경계가 붕괴하는 변화를 겪는다. 그렇게 그를 지지해오던 관점과 경계에 닥쳐온 격파의 상황 체험에서 그의 거듭남이 비롯할 수 있다(선집4, 131).” 오직 철두철미 깨어지는 깨달음만이 삶의 지혜를 낳을 수 있다.

서양 철학에서 개체, 실체, 주체는 같은 계열의 개념들이다.¹²⁾ 박동환은 유독 개체라는 개념을 편애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마도 수직 초월적인 X 이외에 수평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들은 모두 몸을 얻은 x 이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보편을 참칭하는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를 경계하려는 것도 한 가지 이유일 것이다. 개체(individuality)는 어원적으로 원자(atom)과 동일한 뜻, 즉 ‘나눌 수 없다’는 말이다. 서양의 분석적 사유방식, 개인주의와 긴밀히 연결된 단어이다. 그런데 실체, 개체, 주체가기 이전에, x 는 실상 매체에 가깝다. x 는 X 의 매체, ‘ X 의 아파트’(선집4, 270)이다. x 가 매체가기 위해서는 잠정적이거나 개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마찬가지로 X 가 어느 정도까지는 알려져야 한다. 그래야 ‘ x 는 X 의 매체’라는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박동환은 x 존재론의 언어를 “영원의 매체 ‘제 1언어’(선집4, 359)”라고 명명한다.¹³⁾

12) 김동규(2015) 31쪽 이하 참조

13) 그러나 여전히 남는 물음은 이런 것이다. ‘ x 와 X 라는 원천적 무지의 세계에서 ‘언어, 매체, 재현’이라는 것들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히려 이것조차도

박동환은 인간중심주의를 비롯한 모든 중심주의를 비판하고 가장자리를 사유의 터전으로 삼는다. 이것은 작금의 현실을 움직이는 양대 문명, 즉 서양(미국/유럽)과 동양(중국)의 제국주의적 논리를 비판하는 작업과 궤를 같이한다. 이런 현실비판과 함께 문명사적 관점에서 엑스를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 소위 3표론에서 잘 보여주었듯이, 박동환은 서양을 ‘정체쟁의(正體爭議)’로 동양을 ‘집체부쟁(集體不爭)’으로 그리고 한국과 같은 주변자들의 삶을 ‘붙음살이’로 규정한다(선집3, 182 참조).

이 용어들은 X에 응대하는 x의 세 가지 모임살이 형식을 가리킨다. 정체쟁의란 자기 정체성을 우선적 가치로 여기는 개인들이 공적 영역을 조성하여 그 속에서 자기를 정당화하며 투쟁을 극화(劇化/極化)하는 모임살이 형식이다. 이에 비해 집체부쟁이란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의존을 밝힘으로써 갈등을 잠재우고 화해를 도모하는 형식이다. 붙음살이는 기생(寄生)¹⁴⁾의 한국 토박이말로서 자연생태에 가장 근접한 모임살이 형식이다. 붙음살이란 다른 개체들에게 상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궁극적으로 X에 기생(또는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의 생존방식을 뜻한다. 삼표론과 이어지는 x의 존재론에서 박동환은 동서 두 문명권이 자연을 만나는 방식을 ‘인공의 Xx’라 칭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와 대비되는 ‘자연의 Xx’에 붙음살이가 속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선집4, 172쪽 이하 참조).¹⁵⁾

언어(logos) 중심적인 서양 철학의 마지막 흔적은 아닐까?

14)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이 ‘붙음살이’라는 아이디어로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다. 박동환의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이 영화를 분석한 유현식의 글(2019)은 참조할만하다.

15) 이 구분을 도표화하면 다음과 같다.

통 분 해	인공의 Xx		자연의 Xx
	모임 살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양의 정체쟁의 • 동양의 집체부쟁, 집체화해(集)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자리 존재들의 붙음살이

4. 물음과 현실

박동환은 일제 강점기부터 이어진 굴곡 많은 한국 현대사를 겪었다. 수난의 역사, 소위 ‘약소민족의 설움’과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상황’을 체험하면서,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과 같은 말은 처량한 자기변명으로 들렸을 것이다. 우리 역사에서 일말의 긍지를 가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그렇다고 역사를 왜곡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동환은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을 뿌리부터 새롭게 이해하고자 한다. 해답과 중심의 논리를 물음에 붙이고, 소외당하는 주변인으로서 아무것도 아닌 자, 이름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논리를 구상한다.

크고 강한 것이 작고 힘없는 것을 집어삼키는 것은 자연의 이치일지 모른다. 윤리와 법으로 그 이치를 잠시 보류시킬 수 있겠지만, 만일 그제 정말 자연의 엄연한 이치라면, 유보 기간이 무한정 연장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과연 약육강식이 유일한 자연의 모습일까? 강-약의 리듬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 이것도 부인할 수 없는 자연의 이치다. 박동환은 ‘삼켜도 삼키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선집4, 137쪽 이하 참조), 지네를 삼킨 살모사가 도리어 삼켜진 지네의 먹잇감이 된 사례를 들고 있다. 박동환은 이런 사례에서 문명의 주변부에 있는 삼켜지는 것들의 운명을 다음과 같이 해석해낸다.

미미하게 보이는 것들,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것들, 아니면 버거워

		體和諧)	
법 Xx	인간	● 인본주의에 사로잡힌 문명인들	● 한국인, 유대인 같은 주변인들
	정치	● 유가의 덕치와 위민주의 ● 서구의 개인주의, 자유경쟁	● 불일치와 일치의 공생(共生)
	척도	● 자의적으로 가공된 분류체계 ● 인간 본위의 척도	● 자연의 통분 관계 ● 우주의 척도

서 외면해 버린 것들, 그래서 가에로 밀려난 그런 것들이 실은 그렇게 대우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된다. 때로는 알잡아 보고 삼켜버린 것이 안에서 폭란(雷亂)을 일으킬 수도 있고 더하면 목숨을 빼앗아갈 수도 있다.(선집4, 137).

x는 여기에서 일단 ‘미미하게 보이는 것들,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것들, 아니면 버거워서 외면해 버린 것들’, 그래서 덩치 큰 강자에게 쉽게 삼켜진 것들을 가리킨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기실 그렇게 불리거나 대우받을만한 것들이 아니다. x는 ‘영원의 기억과 무한 변신의 잠재력을 간직한 것’이기에 언제든 강자에게 반격할 수 있는 역량을 겸비하고 있다. 그렇기에 ‘삼켜도 삼키는 자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단언이 가능해진다. 이런 포식 비유를 적용하면, 전통 한국문화는 서양문화에 삼켜졌다. 우리 주변에 남아 있는 것이라곤 기껏해야 고궁 주변에서 개량 한복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전부다. 그런데 박동환의 논리에 따르면, 한국문화는 쉽게 먹힐만한 것도, 무시할만한 것도 아니다. 먹혔다 하더라도 내부에서 서양문화를 뒤바꿀 수 있는 저력을 가진 존재다.¹⁶⁾

고전학자 강대진은 어느 강연에서 고대 그리스인들이 찬란한 비극을 만들고 있을 때, 우리 조상들은 고인들을 만들었으며 그로부터 수 백 년 지난 뒤에도 돌칼을 갈며 살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¹⁷⁾ 그 학자의 얼굴과 목소리에서 미개한 조상들에 대한 냉소를 엿본 것은 그저 주관적인 착각일지도 모르겠다. 그의 말이 정확한 역사적 진실이더라도, 문제는 과거를 조롱하는 우리가 옛 선조들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 않다는 데 있다. 고인들을 만들던 옛날처럼 자연에 파묻혀 자연과 벗하며 살지

16) 최근 스포츠와 문화예술 분야에서 김연아, BTS, 한강, 봉준호와 같은 이들의 약진이나 ‘코로나19’에 대한 탁월한 방역 대처능력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다. x의 존재론은 이런 현상들의 철학적 바탕을 해명한 셈이다.

17) 강대진, <열린논단: 문화의 안과밖> 소포클레스 강의, <https://tv.naver.com/v/365061>

도 않으면서, 그렇다고 찬란한 문화를 창작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과연 그 고전학자는 전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선진 문화를 창작하고 있을까? 여전히 모방하고 수입하려고만 들지 않는가? 특히 철학을 비롯한 학문하는 사람들은 이 점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박동환은 이런 세대를 다음과 같이 일갈하고 있다.

짧지 않은 한국철학사에서 일찍이 세종 임금 수준의 철학자가 나타날 수 없었다는 사실처럼 개탄스러운 일은 없는 것 같다. 이 나라에서 철학자들이라고 불릴 만한 분들은 그들이 소속한 역사 가운데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겪은 시대의 체험을 바탕으로 삼아 자기들의 말로써 세계를 사색해서 표상하지를 못하고, 오로지 외래의 언어와 사상의 전통만을 모범으로 수행하며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다스리거나 길들이는 일에 종사하는 데 그쳤다고 볼 수밖에 없다(선집 4, 59).

“언어는 존재의 집”¹⁸⁾이라고 하이데거는 말했다. 언어의 본질을 드러낸 꽤 괜찮은 비유라고 생각된다. 마치 일란성 쌍둥이가 각기 다른 ‘집’에서 오랜 시간을 교류 없이 살았을 때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가진 개인(개성)이 되는 것처럼, 누군가의 존재 방식을 결정하는 데 크게 일조하는 것이 바로 집이다. 집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곳이자, 보호 대상을 길들이기도 한다. 그 길들이가 폭력적일 때도 많다. 그래서 집은 평온한 안식처일 수도 있지만, 폭력이 난무하는 감옥일 수도 있다. 언어도 그렇다.

지상에 존재하는 언어는 인류가 공동체 세운 집이다. 생명의 지속을 위해 생태계에서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게 꼭 필요하듯이, 진리를 위해 언어라는 집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도 절실하다. 인간들이 만든 저마다의 언어에는 세상의 일리(一理)가 담겨 있기 때문이다. 현실에서 꽤

18) 마르틴 하이데거, 『휴머니즘 서간』, 『이정표2』, 이선일 옮김, 한길사, 2005. 124쪽.

권을 행사하는 영어로 모든 언어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편의주의적 발상은 이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그렇다면 한국말에는 어떤 일리가 스며있는 것일까? 한국말의 철학적 의미를 오랫동안 숙고했던 박동환은 이렇게 말한다.

한국말에서는 이른바 주어 또는 입자말이라는 것을 생략하는 문장 구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어 자리에 아무것도 놓지 않고 그 자리에 있다고 상정하는 그것에 어떤 이름이나 정체성을 매길지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미지의 x로 기억하며, 그것이 보여줄 것들을 시간의 흐름 가운데서 기다리는 태도가 한국말의 문장관을 지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결의 상태에서 숨을 죽이고 있는 미지의 x가 보여줄 움직임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x에 대한 판단을 마무리할 술어 곧 풀이말의 마디들을 x가 보여줄 모양에 맞춰 굴절시키려고 맨 뒤에 놓는 전략을 택하는게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선집4, 85).

영어를 비롯한 유럽어는 주어+동사 구조로 짜여있어서, 논지를 신속, 정확하게 전달하는 장점이 있다. 그동안 그 장점에 가려 우리말은 취약한 언어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주어가 자주 생략되고 술어가 마지막에 놓인 이유가 수시로 변화하고 변신하는 사태의 진전을 최대한 고려한 것 때문이라면, 우리말의 특징을 결코 단점이라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실체와 주체를 중시하는 서양인들의 어법은 주어 지배형이 어울린다. 반면 한국인들에게는 관계가 주체(주어)에 앞선다. 술어는 관계의 짜임새를 보여준다. 예측불허의 시간을 기다려야만 정체가 드러나는 관계의 복잡성을 보여준다.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술어 지배형이 어울릴 수밖에 없다(선집4, 350-52 참조). 우열(優劣)을 떠나서 이런 차이를 간파하는 게 중요하다. 특히 영어 패권주의(미국의 패권을 지탱해주는 핵심 주춧돌)¹⁹⁾가

19) 강준만, 『아이비리그의 빛과 그늘 - 능력주의 사회와 엘리트의 탄생』, 인물과사상사, 2011. 351쪽. 여기에서 강준만은 영어가 “팍스 아메리카나(Pax Americana)”를

극성할 경우 더욱 그런 인식이 요구된다.

패권의 위협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하나는 패권에 순응하고 타협하고 동화되는 길이다. 다른 하나는 패권에 맞서는 힘을 길러서 스스로가 패자가 되는 길이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길은 패권 자체를 영원히 부정하는 반골(주변자)의 길이 있을 것이다. 첫 번째 길은 대처법이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임시 전술로는 쓸 수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길 자체가 아니다. 두 번째 길은 현실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비현실적인 길이기도 하다. 경량급 선수에게 헤비급 선수가 되라고 주문하는 셈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패권을 휘두르는 자리가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곳도, 진정 정의로운 자리도 아니기 때문이다.

마지막 세 번째 길은 반골 기질로 표현하기는 했지만, 이론적 정당화가 어려운 길이다. 박동환은 이 세 번째 길을 이미 오래전부터 철학적으로 모색해왔다. 변방에서 체득된 오래된 기질(역사, 기억)과 파격의 논리와 상상력을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가에로 밀려난’ 주변자들끼리의 연대 구축, 이것이 주변자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 아닐까? 답을 어떻게 내리든, “보편의 허구를 선전하는 패권의 철학이 주변자에게서 거부될 수밖에 없다(선집3, 60)”는 점만큼은 중심 패권에 대한 하나의 해석 관점으로 설득력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박동환은 평생 존재를 묻고, 묻고 있는 자신에 대해 또 물었다. 그에게는 물음이 철학이었고 철학이 곧 물음이었다. 그 ‘물음의 철학’이 곧 x의 존재론이다. 평생의 물음을 통해서 그는 패권 중심의 철학에 대항했고, 주변자의 언어인 한국어의 철학적 의미와 그 언어로 철학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밝혔으며, 동서 철학을 아우를 수 있는 미래의 철학, 명실상부한 세계 철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철학사에서 보기 드문 위대한 업적이며 빛나는 성취가 아닐 수 없다. 이 모두 그의 물음이 한 일이다.

지속하는 강력한 힘”으로서 “미국 패권의 몰락을 막는다”고 보고 있다.

그런데 이런 거인적인 물음 체계에 어떤 물음 하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 이것이 작동하지 않는다면, 지금껏 쌓아 올린 성취들의 상당 부분이 한순간 빛바래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물음을 가동시켜야 한다. 마지막 남은 그것까지 물어야 한다. 이것은 빠트려도 무방한 물음이 아니다. 물음 자체에 내재한 운명적인 물음이기 때문이다. 모든 물음이 짊어져야만 하는 물음의 운명. 그리하여 이 글의 최종 과제는 x의 존재론에게 물음의 책임을 끝까지 묻는 일이라 하겠다.

5. 책임을 묻다

묻는 과정은 먼저 물음 대상을 부르고, 다음으로 상대의 응답을 불러오는 식으로 전개된다. x는 이름을 붙일 수 없는 구체(具體)의 삼라만상을 가리키는 문자다. 그런데 누군가 그것에 이름을 붙인다면, 끝내 그 이름은 부서지고 흩어져 버린다. 주인 없는 빈집이 된다. 억지로 부르려고 하면, 결국 이름을 부르려던 이가 X를 통해 격파되고 말 것이다. 그런 것이 x다. 눈치챌겠지만, x에 대한 기술(記述)이 뜬금없이 소월의 「초혼(招魂)」의 시구와 겹친다.²⁰⁾ 왜일까?

소월의 시와 박동환 철학은 거의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철학자의 글을 읽으며 시를 떠올리고, 그 철학자에 관한 글을 쓰면서 시를 인용까지

20) “산산히 부서진 이름이여!/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심중에 남아 있는 말 한마디는/끝끝내 마저 하지 못하였구나./사랑하던 그 사람이여!/사랑하던 그 사람이여!” - 김소월(2005)의 「초혼」, 부분

혼(魂)과 x가 생각만큼 무관한 것은 아니다. 박동환은 소위 ‘영혼’이라 불리던 것을 x의 존재론에서 이렇게 해명한다. “태초로부터 쌓여온 격파들을 간직하고 있을 영원의 기억과 그로 비롯하는 상상 가운데서 불멸의 영혼이 움직인다(선집 5, 119).” 시인은 혼을 부르고(招), 철학자는 x를 묻는다. 이 모두가 사랑(X)이 한 일이다.

한 까닭은 박동환의 철학에 결핍된 것이 이 짧은 시 속에 담겨 있음을 말하기 위해서다. 박동환의 철학에는 그가 물었던 모든 것들의 존재가 담겨 있다.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를 진지하고 철저하게 묻지 않았다. 알고 싶어 묻는 마음, 필리아, 사랑이 그것이다. 이것을 무엇이라 이름하든, 박동환 철학에는 사랑에 대한 깊은 성찰이 감춰져 있다.

통상 지식은 그 대상에 대한 통제력을 준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은 이런 의미다. 물론 박동환에게 x는 단순한 사물도 개체도 대상도 아니다. 알 수 없는 영원이 깃든 ‘그것’이다. 이 점에서 박동환은 지식의 대상을 이전 어떤 철학자와도 다르게 취급한다. 그것은 함부로 대할 수(지배할 수) 없는 존재다. 분명 그렇다. 그렇지만 x가 제 아무리 우주적 영겁의 응축물이라 하더라도, 만고의 진리라 하더라도, 굳이 여기서 불려올 이유는 없다. 인간이 안티호모에렉투스적(반-인간중심주의적) 진리를 묻고 말해야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른바 박동환 철학의 아킬레스건²¹⁾은 술한 물음들 저변에 놓인 ‘사랑’에 있다. 그 사랑의 윤리성에 있다. 고매하고 근엄한 철학들이 대개 그러하듯, x의 존재론에서 사랑은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이따금 본능이나 욕망 차원에서든 예수의 사랑 같은 숭고한 차원에서든, 사랑론 개진이 있을 법한데도 말이다. 뜻밖에도 X의 (기독교) 신학적 해석 가능성을 밝히고 있기에 기대를 해 보았지만, 사랑에 관한 논의는 역시 없었다. 기독교의 신은 무한한 절대자(그가 애독했던 구약의 「전도서」)일 뿐만 아니

21) 호메로스(2015)에 따르면,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최고의 전사로서 민첩하고 날쌔다리와 발을 가졌다. 그의 이름 앞에 붙는 대표적인 수식어 ‘준족(駿足)’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런데 최고의 탁월성을 만들어 준 발목이 아이러니하게도 치명적인 급소였다. 박동환 철학의 허점도 그와 유사하다. 지금껏 보았듯이 박동환 철학의 최고 역량은 ‘물음’에 있다. 그런데 등잔 밑이 어둡듯이, 빛나는 물음 아래 그림자 같은 허점이 도사리고 있던 셈이다. 이처럼 아킬레스건 비유는 앞서 글의 부제로 쓰인 ‘지렛목’과 이어진다. 어쨌든 박동환 철학의 아킬레스건은 사랑, 특히 철학적 물음 배후의 필리아(가 요청하는 윤리)인 것으로 보인다.

라, 동시에 사랑의 신(신약에서의 예수)인데, 후자의 측면은 제대로 조명되지 않는다. 물론 박동환은 “개체성의 자연보호와 독선금지”를 “제1의 도덕률에 근접한 것”으로 제안하기를 한다(선집4, 539-40).

윤리적 색조가 가미된 ‘개체성의 자연보호와 독선 금지’라는 말은 x의 존재론의 웅장한 스케일에 비하면 지나치게 앙상한 문구로 비친다. 게다가 오해의 소지가 많은, 적확하다고 말하기 어려운 용어다. 자연보호라는 말은 한때 국가적 캠페인으로 쓰이던 말인데, 이 표현대로 인간이 과연 자연을 보호할 만큼의 역량을 가진 존재인지, 역으로 자연이 과연 보호 받을 정도로 허약한 존재인지 의심스럽다. 박동환의 반-인간중심주의 철학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문구가 ‘보호해야만 한다’와 ‘독선을 피워서는 안 된다’라고 읽힌다는 점이다. 이 당위는 도대체 어디에서 유래한 것일까?²²⁾

박동환의 x는 우주적 수준에서 영원을 머금은 기억 조각이기에 한갓(인간이 우연히 만든 명령이나 지시 따위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개체성의 자연보호와 독선 금지는 이런 의미를 담은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생물학자들이 자주 언급하듯이, ‘사랑이나 희생’처럼 보이는 현상은 자연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땅다람쥐는 포식자가 나타나면 스스로는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경고음을 내어 동료들을 피신시킨다(선집5, 12-23 참조). 사람도 땅다람쥐도 다른 개체를 위해 희생을 하며, 그들 모두 영원의 기억 x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평

22) 필자는 이미 이 같은 물음을 제기한 적이 있고, 「사사로운 대화록에서」라는 꼭지에서 자세한 답을 들은 바 있다(선집5, 12-23 참조). 그 점에서 이 글은 선생의 해명에 대한 공식적인 답신인 셈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글은 사사롭고 조약하기만 했던 필자의 이전 물음을 다시 다듬어낸 질의서라고 할 수 있다. 선생의 답변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1) 사람은 대상이 아닌 x이다. (2) 사랑 현상은 x의 존재론으로 설명할 수 있지만, x의 존재론에 통상의 윤리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없다. 개체성의 자연보호와 독선 금지는 “x의 존재론과 그의 자연학에서 유도되어 나오는 부칙(附則) 또는 ‘따름정리’(corollary)”일 뿐이다.

등한 존재다. 문제는 이 x 가 한갓 대상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것에 비해 각별한 존재로 여길 만한 유별난 이유도 없다는 점이다.

생명체는 타자를 먹고 살아간다. 먹히는 것은 먹는 자에게 먹잇감 ‘대상’일 수밖에 없다. 지네를 삼킨 살모사의 경우, 과연 살모사가 지네를 x 로 인식하고 보호할까? 더 나아가, 그래야만 할까? 지네를 먹는 것은 살모사에게만 유독 좋은(獨善) 것이기에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할까? 소위 약육강식이 벌어지는 곳에서 ‘개체성의 자연보호와 독선 금지’라는 말은 반향을 얻기 힘들 것이다. 이 설정이 우스꽝스럽게 보인다면, 자연보호와 독선 금지는 단지 인간에게만 국한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박동환 철학에서는 그렇게 보기도 어렵다. 몸을 가진 모든 것들은 x 라는 점에서 평등하며 사랑마저 자연현상으로 환원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살모사에게도 똑같이 자연보호와 독선 금지를 적용해야 한다. “땅다람쥐를 포함하는 자연의 생명 일반이 그의 몸 x 에 지니고(선집5, 18)”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자연보호와 독선 금지도 그 근거가 자연에 있을 것이다.

‘이다(be)’로 짜인 사실 세계에서는, 그것도 미지(未知)를 핵심으로 삼는 x 의 존재론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고 이래야만 한다’는 당위($should$)의 언사는 불가능하다. 물론 사실들의 집적(集積)이 어느 정도까지 당위의 정당성을 설명해주는 하지만, 기껏해야 보완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이다. x 의 존재론에서 당위의 출처를 찾을 수 없다. 당위는 존재로부터 도출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존재 물음의 부산물인 지식, 소피아에 당위는 없다. 소피아에는 오직 ‘이다’만 있을 뿐이다. ‘이어야 함’은 오직(존재 물음을 추동하는) 필리아에서만 나올 수 있다.²³⁾ 불가해한(x 처럼) 필리아만이 조건 없는 당위를 말할 수 있다.

사실 박동환은 이미 오래전에 사랑에 관한 물음의 씨앗을 뿌려 두었

23) 여기에 관해서는 필자의 줄거, 『멜랑콜리아』 10장과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 ‘에필로그’ 참조

다. 일례로 그는 ‘양심’에 대해 의미심장하게 말한 바 있다. 이것은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에 근접한 개념이다.

왜 논리가 아니라 양심을 철학의 방법으로 하는가? 사람들의 논리는 도구일 뿐이다. 양심은 도구인가? 무엇의 도구인가? 양심이라는 것은 강자가 매기는 약자 지배의 도구이거나 약자가 호소하는 강자 조정의 도구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지배와 조정의 논리를 집착과 왜곡으로 고발하는 양심의 보다 깊은 소리, 보편주의가 있다(선집2, 39).

니체와 프로이트는 ‘양심’ 개념을 호되게 비판한 적이 있다. 약자들의 원한이라고, 사회적 금기의 내면화라고 말이다.²⁴⁾ 그러나 이들의 비판이 유의미하려면 또 다른 차원의 양심, 곧 ‘보다 깊은 소리, 보편주의’ 양심을 전제해야만 한다. 양심 없는 비판이야말로 한갓 공격 본능, 지배본능의 표출일 뿐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박동환이 위에서 말한 양심은 의미심장하다. 냉철하게 현실을 직시하는 지식인들(예컨대 니체나 프로이트)이 곧잘 놓치는 지점이기에 특히 그러하다. 한때 박동환 철학에도 ‘물음을 일깨워’ 주는 양심이 존재했다.

양심 말고도 박동환 철학에는 과학 법칙으로 해명되지 않는 ‘불가능한 용서’도 있었다. “‘자연은 용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 과학주의자가 가르치는 자연의 법칙을 넘어 사람의 비자연성에 다시 마음을 돌리도록 이끄는 것이다(선집1, 160-61)”. 데리다도 잘 보여주었듯이²⁵⁾, 용서는 계산의 논리와 등가 교환 법칙을 위반하는 사랑의 정수이자 초월의 신비다. 그러나 아쉽게도 양심이나 용서에 관한 논의는 x의 존재론에서 진지하게

24)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 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2. 418쪽. 지크문트 프로이트, 『종교의 기원』,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2004. <토텐과 터부> 참조.

25) 자크 데리다, 『용서하다』, 배지선 옮김, 이숲, 2019.

다뤄지지 않는다. 자연보호와 독선 금지가 x 존재론의 “무의식적”(선집4, 540)인 윤리학적 전제 혹은 부칙(附則) 정도로만 언급될 뿐이다.

드물지만 여전히 양심이 언급되고 있다. 먹고 먹히는 자연을 바라보며 개별 생명체들의 ‘존재의 권리’를 언급할 때, 그는 양심을 말한다. 여기에서 존재의 권리란 ‘개체성의 자연보호와 독선 금지’와 맞닿아 있는 개념이다. “나는 이 같은 존재의 권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나 자신에게 던질 때마다 불편함과 **양심의 문제에** 걸려서 그 방면으로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선집4, 538 인용자 강조).”²⁶⁾ 이 말을 달리 해석하자면, 양심의 가시에 찢리는 고통이 심해 윤리 문제에 눈 감을 때에만 x의 존재론을 진전시킬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양심의 출처는 어디일까? 이것도 땅다람쥐의 희생처럼 종(種)이나 유전자 보존 수준에서 해석하고 말 문제인가? 이제는 (오랫동안 억압되고 유예된) 이 물음에 답해야 한다. 여전히 ‘다이몬’ 같은 양심의 소리가 어렴풋이라도 들려온다면, 사랑을 폄하했던 자신의 주장을 반복해야만 했던 소크라테스처럼²⁷⁾ 이 문제를 전향적으로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박동환은 왜 물음을 물었는가? 그는 X의 어떤 물음에 응답하려고 것처럼 끊임없이 물었던가? x(의 내재적 필리아)가 결국 X의 아바타라면, 혹시 X는 초월적 필리아가 아닐까? 사랑(X)이 사랑(x)을 사랑하는 것(Xx) 아닌가? 설사 x의 존재론에 윤리학을 위한 별도의 공간은 없을지라도, 물음에 담겨 있는 양심, 곧 사랑의 윤리성²⁸⁾만큼은 외면할 수 없지 않을까?

26) 같은 맥락의 물음은 이전에도 찾을 수 있다. “세상에 벌어지는 먹이사슬. ... ‘왜 우리들은 서로 싸우도록 지어졌습니까?’ 지어진 자가 지은 자에게 던지지 않을 수 없는 의문, 이해할 수 없는 지은이의 도덕성(선집1, 23).” “왜 세상은 강약의 관계로 얽혀 있는지, 그럼에도 개체가 그 자체를 지속하려고 그러는지 그것은 참으로 나의 머리를 떠나지 않는 물음입니다. ... 그 물음들은 언제나 물으면 물을 수록 깊이를 알 수 없는 끔스러운 의문이 됩니다(선집3, 221).”

27) 플라톤, 『파이드로스』, 조대호 옮김, 문예출판사, 2008. 49쪽 이하 참조.

누구라도 처음에는 철학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철학에 끌릴 수 있다. 그러나 언젠가는 (맨 처음 자신을 불렀고 평생을 부리고 있는) 필리아에 대해 반드시 성찰해야만 한다. 이것은 철학의 길을 떠날 때, 묻는 이가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이다. 길을 걷다 보면, 니체도 말한 바 있듯이, “진리는 냉혹하다”²⁹⁾는 것을 직감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마다 ‘이 비정한 진리를 대체 왜 쫓아가야만 하는 걸까?’라는 물음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이 물음에 답해야 하는 의무, 이런 것이 바로 ‘물음의 책임’이다.

28) 사랑의 윤리성에 대한 기초 아이디어는 “사랑의 의무”를 논했던 칸트에게서 빛을 본 것임을 밝힌다. 필자는 칸트에게서 몇몇 아이디어를 얻었지만, (자연과 분리된, 유아론적이고 남성적이고 인간중심적인) ‘자유’에 근거한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와는 거리를 두고 있다. 이미 필자의 이전 저서(2010/2014/2019)에서 필리아의 윤리성에 대한 희미한 윤곽은 선보였다. 그리고 결실 있는 연구를 향후의 과제로 삼고 있다. 임마누엘 칸트, 『도덕형이상학』, 이충진, 김수배 옮김, 한길사, 2018. 378쪽 이하 참조.

덧붙여서 본 논문을 꼼꼼하게 읽어주신 이름 모를 심사자들의 말, 즉 “소피아와 필리아 또는 존재와 당위의 간극을 박동환 철학이 충분히 의식했음에도, 그 간극을 메울 다리를 적극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이유에 대한 고민이 좀 더 필요해 보인다”거나 혹은 논문에서 5장을 따로 분리하여 “두 개의 글로 나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할 정도로 5장의 논증 과정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 그럼에도 이런 조언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필자의 역량 부족과 지면의 한계 문제도 있지만, 앞서 밝혔듯이(각주 22번), 이 글이 박동환 선생께 띄우는 글월(질의서)의 성격을 띠고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허술한 주장을 가지고서라도 ‘살아있는’ 철학적 대화를 희망했기 때문이다. 성심성의껏 심사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29) 프리드리히 니체, 같은 책, 271쪽.

참고문헌

■ 박동환 선집

- 선집1: 『서양의 논리 동양의 마음』, 사월의 책, 2017.
선집2: 『동양의 논리는 어디에 있는가』, 사월의 책, 2017.
선집3: 『안티호모에렉투스』, 사월의 책, 2017.
선집4: 『x의 존재론』, 사월의 책, 2017.
선집5: 『진리의 패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월의 책, 2019

■ 인용된 문헌들

- 강대진, <열린논단: 문화의 안과밖> 소포클레스 강의,
<https://tv.naver.com/v/365061>
김동규, 김응빈, 『미생물이 플라톤을 만났을 때 - 생물학과 철학의 우아한 이중주』, 문학동네, 2019.
김동규, 「후기 하이데거 철학의 동물론: 아감벤, 데리다 비판의 맹점」, 『철학 탐구』, 제52집, 2018.
김동규, 「버림받은 자유 그리고 사랑 - 고정희와 사르트르를 중심으로」, 『Comparative Korean Studies』, Vol.23, No.2, 2015.
김동규, 『멜랑콜리아-서양문화의 근원적 파토스』, 문학동네, 2014.
김동규, 『멜랑콜리 미학 - 사랑과 죽음 그리고 예술』, 문학동네, 2010.
김상봉, 「비주체성의 역설」, 교수신문, 제213호, 2001년 11월 14일.
김상환, 『철학과 인문적 상상력』, 문학과지성사, 2012.
김소월, 『진달래꽃 (외)』, 종합출판범우, 2005.
미셸 푸코, 『지식의 의지에 관한 강의』, 양창렬 옮김, 난장, 2017.
아리스토텔레스, 『형이상학1』, 조대호 옮김, 나남, 2012.

- 유현식, 「‘한류’의 철학 - 다섯 가지 미학적 코드」, 『한국연구』, 2집, 한국연구원, 2019.
- 임마누엘 칸트, 『학부들의 논쟁』, 오진석 옮김, 도서출판b, 2012.
- 임마누엘 칸트, 『도덕형이상학』, 이충진, 김수배 옮김, 한길사, 2018.
- 자크 데리다, 『용서하다』, 배지선 옮김, 이숲, 2019.
- 장-조제프 구, 『철학자 오이디푸스』, 정지은 옮김, 비(도서출판b), 2016.
- 지크문트 프로이트, 『종교의 기원』, 이윤기 옮김, 열린책들, 2004.
- 프리드리히 니체,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김정현 옮김, 책세상, 2002.
- 플라톤, 『파이드로스』, 조대호 옮김, 문예출판사, 2008.
- 플라톤, 『향연』, 강철웅 옮김, 아카넷, 2020.
- 호메로스, 『일리아스』, 천병희 옮김, 도서출판 숲, 2015.
- Hadot, Pierre, *The Veil of Isis: An Essay on the History of the Idea of Nature*, trans. by Michael Chas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 Heidegger, Martin, *Sein und Wahrheit 1. Die Grundfrage der Philosophie (S1933) 2. Vom Wesen der Wahrheit(GA36/37)*. hrsg. von Hartmut Tietjen, Frankfurt a.M.: Vittorio Klostermann, 2001.
- Lawlor, Leonard, *This Is Not Sufficient: An Essay on Animality and Human Nature in Derrida*,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 Derrida, J., “Mochlos, or The Conflict of the Faculties”, in: *Eyes of the University: Right to Philosophy2*, tras. by J. Plug & Others,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4.
- Martinelli, Dario, “Anthropocentrism as a social phenomenon: semiotic and ethical implications,” in: *Social Semiotics*, vol. 18, no. 1, March, 2008.

The Responsibility of Question:

A Lever(hypomochilum) of Dong-Hwan Park's Philosophy

Kim, Dong Gyu (Yonsei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construct and critically evaluate the core of Park's philosophy, which was already praised by domestic philosophers, with the keyword 'question'. Questioning is nothing more than a philosophizing(from Greek φιλοσοφία, literally 'philia of sophia'). Park is a philosopher who threw many questions and was obsessed with questions. He distinguishes philosophical questions from non-philosophical questions, and defines logic as a form of questions. According to him, the logic is divided into 'the logic of the answer' that assumes the correct answer and 'the logic of the question' that does not. He has regarded the question as a primitive life phenomenon(ex. stab, smell). If the logic of Western and Eastern civilizations is the logic of the answer, the marginal such as Koreans and Jews have a way of thinking close to the primitive logic of the question. In recent years, Park has published an original ontology, so called the 'ontology of x'. According to its ontology, Being shows three phases. (1) x : an individuality with a body containing the memory of eternity (2) $\neg x$: thing that performs infinite imagination and self-destruction on the basis of x , and (3) $X()$: thing that will defeat both x and $\neg x$ ultimately. It is expected that a fair evaluation will be conducted through further studies.

Achilles' heel of Park's philosophy lies in 'philia', which is at the base of the question. It lies in the ethics of the question. Of course,

Park also suggests ‘protecting nature of individuality and prohibiting self-righteousness.’ However, we cannot find the source of this words in the ontology of x. The obligation is not derived from the world of the Being. Sophia, a byproduct of Being-question, has no right to prohibit. In sophia, there is only to be something. The obligation can only be found in philia, which drives the Being-question. Only through the mouth of incomprehensible philia like x, can be said the unconditional obligation.

Key words: Dong-Hwan Park, Question, Anthropocentrism, Logic, Ontology of x, Love

김동규 E-mail: sorgekim@hanmail.net

투 고 일	2020년 04월 10일
심 사 일	2020년 04월 24일
게재확정	2020년 05월 18일